BIEF

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2021 FOIRES DU MONDE*

SEOUL

* 2021 서울국제도서전 - 서울특별시

저작권 판매 현황은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관련 최신 정보는 해당 출판사의 저작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

Design: www.athom.fr 옮긴이 이은정 : Julia Eun Jeong Lee - ejlee.julia@gmail.com

Bureau International de l'Édition Française
115, bd Saint-Germain - 75006 Paris, France
t. +33 (0)1 44 41 13 13 - f. +33 (0)1 46 34 63 83
info@bief.org - www.bief.org

JC Lattès

- 그리고 여전히 숲
- 세 자매
- 술에 취한 역사
- 젊음을 즐겨라!
- 포옹
- 나무 한 그루가 있는 언덕
- 두 번째 여자
- 마녀 콤플렉스
- 검은 태양의 주기(제1권)
- 검은 태양의 주기(제2권)
- 검은 태양의 주기(제3권)
- 재생의 4단계
- 유성의 연인
- 줄라의 실종
- 무적의 두 사람
- 빨간색과 흰색으로 이루어진 인생
- 비단 기억
- 자스민 혁명
- 인질
- 사막의 수영장

JC 라테

www.editions-jclattes.fr 해외 저작권 Eva Bredin Wachter : ebredin@jclattes.fr | 해외 저작권 Elsa Misson : emisson@jclattes.fr
수출 Sophie Perfus Mousselon : sperfusmousselon@jclattes.fr

JC 라테

문학

상드린 콜레트

인간의 폭력성을 이야기하고 생존의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우화의 경계에 선 소설.

ET TOUJOURS LES FORÊTS

그리고 여전히 숲

코랑탱을 원하는 사람은 없었다. 도망간 아버지도,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던 조부모도. 그녀의 어머니조차 코랑탱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끌려다니던 코랑탱의 어린 시절에는 방황만이 있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코랑탱을 마을의 노파 중 한 명인 오귀스틴에게 버렸다. 노파가 살고 있는 숲의 깊은 계곡, 그 험한 땅에서 코랑탱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코랑탱은 공부를 하러 떠난 대도시에서 번쩍이는 불빛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파티에 몰두했다. 그런데, 주변의 세상이 불타고 있었다. 이상 현상에 의한 열기는 계속해서 땅을 말려버렸다. 6월이 되자 나뭇잎이 전부 떨어졌다. 무언가가 일어나려 하고 있다. 다른 이들도, 코랑탱도, 모두가 느끼고 알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파열되던 밤, 코랑탱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지하 묘지 깊숙이 숨어들었다. 황폐해진 세상 위로 다시 올라갔을 때 그는 이미 혼자였다. 인간도 짐승도 모두 사라졌다. 코랑탱은 노파 오귀스틴을 찾으러 가겠다는 미친 희망을 품고 숲으로 숲으로, 먼 길을 떠난다. 황량한 세계의 불가능한 부활에 대한 집착과 모든 것이 완전히 멈춰버릴 수는 없다는 확신에서 시작된 코랑탱의 광란의 여정을 그려낸 작품.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영어 (Europa Editions), 이탈리아어 (Edizione E/O)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25000부 판매
> 2020 RTL-Lire 2 그랑프리/ 2020 la Closerie des Lilas 상 / Le livre France Bleu 상/ 2020 Page des Libraires 상

9782709666152 | 2020 | 334쪽
21X13 CM | 20.00 €

문학

아델 브로

세 자매와 가족의 저택 가리그, 삶을 뒤흔들 여름과 숨겨진 비밀들.

FRANGINES

세 자매

마틸드, 비올레트, 루이즈. 카르팡티에가의 세 자매는 어릴 때부터 생 레미 마을이 아직 관광객으로 북적이지 않았던 시절 부모님이 마을에 구입한 저택 '가리그'에서 살며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함께 보냈다. 눈부시게 아름답고 지배적인 마틸드, 장녀의 그늘에서 자란 차녀 비올레트, 몇 년 후 태어난 막내 루이스, 세 자매는 삶의 기쁨과 시련을 함께 하며 서로 간에 단단한 유대 관계를 형성했다. 올여름, 세 자매는 작년의 비극 이후 처음으로 가리그에서 다시 모인다. 작은 분노, 큰 격변, 숨겨진 비밀들 사이에서 세 자매의 재회는 가족 심리치료극처럼 변하고, 사랑스런 마을 생 레미의 밝은 햇살 속에 세 자매의 원한과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데...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스웨덴어 (Systrar, Sekwa), 체코어 (Grada)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25000부 판매

9782709666367 | 2020 | 378쪽
21X13 CM | 19.90 €

JC 라테

인문사회·에세이

브누아 프랑크밤

술이 세상을 바꾸던 순간.

IVRESSES

술에 취한 역사

수 세기 동안, 음주에는 무거운 대가가 뒤따랐고 음주는 한 번 이상 역사를 바꾸어놓기도 했다. 기원전 2000년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는 엄청난 양의 맥주의 힘으로 지어졌다. 또한 프랑스의 백년 전쟁에서의 승리는 소뮈르 와인통 덕분이었다. 댈러스에서는 경호원이 숙취에서 깨고 있던 사이에 JFK가 암살당했다. 1994년 12월 31일 저녁에는 술 취한 러시아 장군이 술김에 체첸에서 그로즈니를 공격하기로 결정한다. 우리가 아직 마셔본 적 없는 역사 이야기가 펼쳐진다!

9782709666374 | 2020 | 174쪽
22X14 CM | 19.00 €

실용·자기계발·취미

로랑 알렉상드르

붕괴학에 대한 인본주의자의 대답.

JOUISSEZ JEUNESSE !

젊음을 즐겨라!

녹색 광신주의에 짓눌리지 않고 기후와 환경에 대해 합리적이고 진보적이며 인본주의적인 대담을 나누는 방법은 무엇일까? 붕괴학의 흐름은 오늘날 우리를 기술 전쟁 속에 길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 자연 보호라는 명목하에 혁신을 거부함으로써 프랑스는 중국과 저 거대한 미국에 밀려 역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제, 거짓된 신념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진보에 대한 믿음을 되새길 때다. 정치적 폭력성으로 번지곤 하는 극단적인 환경 보호에의 경각심에 굴복하지 않고 진정한 국가의 진보를 이룩하는 일은 청년층의 손에 달려 있다. 세상은 아직 종말을 앞두고 있지 않다. 인류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9782709666954 | 2020 | 445쪽
23X14 CM | 20.90 €

JC 라테

문학

플라비 플라망

사랑의 탄생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충만함에 대한 강렬하고 섬세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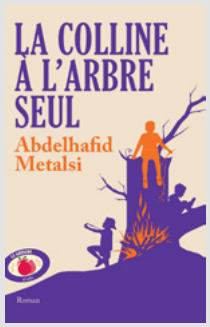
L'ÉTREINTE

포옹

마흔다섯 살 엠마는 자유를 사랑하는 여성이다. 삶과 고통스러운 사랑에 지친 그녀는 이제 순간을 살아가기로 결심한다. 어느 2월의 아침, 엠마는 그녀를 뒤흔든 한 남자를 만난다. 그러나 전염병으로 통제된 프랑스에서 이제 막 시작되려는 그들의 만남은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원거리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서로를 만질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없는 시대에 타인을 향한 욕망은 어떻게 커져가는가? 그리고 언젠가 서로를 만질 수 있게 되는 날, 두 사람 사이에는 무엇이 남게 될 것인가.

9782709668293 | 2020 | 175쪽
21X13 CM | 18.90 €

문학



압델하피드 메탈시

프랑스 동부의 한 작은 노동 계급 마을에서 성장하는 다섯 명의 아이들.

LA COLLINE À L'ARBRE SE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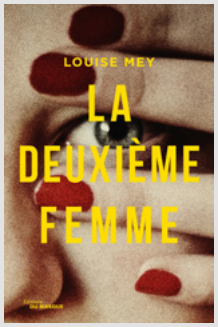
나무 한 그루가 있는 언덕

그들은 주머니에 동전 한 푼도 없는 10살이지만 영화관과 찐 감자와 코카콜라를 숭배한다. 다섯 명의 수완 좋은 소년들은 새로운 발견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동전 몇 푼을 벌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져 금속, 상자, 빈 병 등을 모아 그리 정직하지 않은 고물상에 가져다 판다. 그러나 집시와 부랑자 모모도 고물을 줍기 시작하면서 경쟁은 점점 치열해진다. 소년들은 어른이 되기만을 기다리며 고양이 '행운이'와 함께 변두리를 어슬렁거리고, 세상의 기원에 대해, 그리고 나무 한 그루가 심어진 언덕 위에서 알몸으로 누워 있던 한 연인에 대해 궁금해한다. 로맹 가리의 <자기 앞의 생>, 루이 페르고의 <단추 전쟁>, <400번의 구타> 등 명작들의 명맥을 잇는 성장 서사.

라 그르나드 | 9782709667333 | 2020
189쪽 | 22X14 CM | 19.00 €

JC 라테

문학



루이즈 메

유독하고 폭력적인 관계에 갇힌 한 젊은 여성에 관한 매우 충격적인 범죄 소설.

LA DEUXIÈME FEMME

두 번째 여자

수치를 주고 성 차별적이며 학대하는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상드린은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으며 스스로를 고립시켜왔다. 30대가 된 상드린은 여전히 자기혐오로 가득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너무 뚱뚱하다고, 얼굴은 칙칙하고 성격은 어둡다고 생각한다. 어느 날, 한 남자의 부인이자 남자아이의 엄마인 한 여성이 조깅을 하다 사라진다. 그리고 상드린은 그녀의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 사건이 온갖 미디어를 수 놓고 있을 때, 상드린은 피폐해진 남편에게 다가간다. 드디어 자신을 사랑해주고 그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았다. 상드린은 남자의 교활하고 폭력적인 행동에도 눈을 감아버리고, 남자와 함께 새로운 장소로 이사를 하고 남자의 아들을 돌보며 살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사라졌던 부인이 다시 나타나고, 상드린의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RIGHTS SOLD
영어로 출판됨 (Puskin Press, UK)

FIND OUT MORE
> 고몽 텔레비지옹

마스크 출판사 | 9782702449462 | 2020
332쪽 | 21X14 CM | 20.00 €

문학

이자벨 소랑트

마녀사냥의 역사, 그리고 마녀사냥이 여성들 안에 남긴 발자국을 탐구하다.

LE COMPLEXE DE LA SORCIÈRE

마녀 콤플렉스

어느 날 밤, 이자벨 소랑트의 꿈에 빡빡머리에 맑은 눈을 가진 마녀가 한 명 나타난다. 그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왜 그날 밤 꿈에 나온 걸까? 어째서 그 꿈이 자꾸만 떠오르는 걸까? 꿈속의 마녀는 좀처럼 그녀를 놓아주지 않고, 이자벨은 소설가답게 해답을 찾아 나선다. 유럽에서는 3세기 동안 10만 명의 여성이 처형당하고 20만 명 이상이 고발당했다. 이 여자들에 대해, 마녀의 이미지에 대해 알아갈수록 마녀의 꿈은 이자벨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와 젊은 시절의 기억을 되살린다. 마치 마녀가 그녀 안에서 조종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녀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처럼 그녀의 잊혀진 기억이 되살아 났다. 이자벨은 위험한 작가와 계약을 맺은 것처럼 떠오르는 기억을 써내려간다. 그녀 자신을 위해, 그리고 모든 여자들을 위해. 어쩌면 마녀사냥과 처형은 마녀사냥이라는 행위의 폭력성에 의해, 그리고 그것이 불러일으킨 두려움과 의심에 의해 모든 여자들의 기억 속에 비밀 표식과도 같은 은밀한 흔적을 남긴 것이 아닐까? 이 소설은 우리가 누구인지, 마녀 콤플렉스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한 그 마녀 콤플렉스가 어떻게 우리를 구하는지에 대한 내밀한 탐구이다.

9782709666268 | 2020 | 299쪽
21X13 CM | 20.00 €

JC 라테

› 검은 태양의 주기

문학

에릭 자코메티
자크 라벤

나치주의에 숨겨져 있던 신비주의를 파헤친다.

› LE CYCLE DU SOLEIL NOIR (TOME 1) :
LE TRIOMPHE DES TÉNÈBRES

검은 태양의 주기(제1권)
어둠의 승리

1939년 1월 티베트. 보안정보국의 원정팀은 불가사의한 금속으로 조각된 스와스티카를 손에 넣는다. 고대의 예언에 따르면 이 스와스티카는 누구든지 전부 손에 넣으면 세상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네 가지 원소(불, 공기, 물, 땅) 중 하나다. 1939년 1월 스페인. 프랑스 탐험가 트리스탄이 이끄는 공화당 특공대가 몬세라트 수도원을 털고 4원소 중 하나가 숨겨진 장소와 관련된 한 그림을 발견한다. 1940년 10월. 나치 독일이 유럽을 지배한다. 어둠의 승리였다. 4원소 중 나머지 세 개의 원소를 찾기 위한 경주가 시작된다. 밀교와 고고학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 아흐네네르베의 수장은 트리스탄을 수감소에서 해방해주며 협력을 강요하는데... <검은 태양의 주기> 3부작의 첫 번째 작품으로, 나치즘과 밀교 사이의 잘 알려지지 않은 관계를 탐구하는 책이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을 때 밀교적 사고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리고 밀교의 파벌이 역사적으로 미친 영향력은 진정 어디까지인지 파헤친 대작 시리즈.

RIGHTS SOLD
7개국 저작권 판매 완료: 스페인, 폴란드, 중국, 일본, 이탈리아, 세르비아 등

FIND OUT MORE
> 6만부 이상 판매됨 (프랑스)

9782709656085 | 2018 | 475 PAGEs
23X14 CM | 22.00 €

› 검은 태양의 주기

문학

에릭 자코메티
자크 라벤

아돌프 히틀러의 젊은 시절에 숨겨진 어떤 비밀 속에 진실이 있다면?

› LE CYCLE DU SOLEIL NOIR (TOME 2) :
LA NUIT DU MAL

검은 태양의 주기(제2권)
악의 밤

폭탄 테러에도 불구하고 런던에서 삶은 계속된다. 특수 임무를 담당하는 영국 장교 말로리는 아직 범인을 파악하지 못한 폭발을 파악하기 위해 SS 밀교의 스승이자 지금은 런던 타워에 갇힌 죄수가 된 루돌프 헤스의 비밀을 밝히려 한다. 유럽의 반대편에서는 오컬트와 고고학을 전문으로 하는 나치 연구소 아흐네네르베가 크노소스의 고대 유적지인 크레타섬에서 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독일인들은 세 번째 스와스티카를 찾아 헤매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미스터리한 암살 사건으로 탐색은 지연되고, 히믈러의 명령을 받은 트리스탄과 에리카가 스와스티카의 흔적을 찾아 나선다. 베벨스부르크의 성에서 오스트리아의 수도원까지, 스와스티카를 손에 넣기 위한 뜨거운 경주가 시작된다. 그리고 경주는 베네치아에서의 마지막 결투와 함께 막을 내리는데...

RIGHTS SOLD
7개국 저작권 판매 완료: 스페인, 폴란드, 중국, 일본, 이탈리아, 세르비아 등

FIND OUT MORE
> 6만부 이상 판매됨 (프랑스)

9782709656092 | 2019 | 426쪽
21X14 CM | 22.00 €

JC 라테

› 검은 태양의 주기

Literature & Fiction

에릭 자코메티
자크 라벤

독일의 고고학자 에리카, 젊은 여성 프랑스 저항군 로르, 이중 요원 트리스탄, 그들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다.

› LE CYCLE DU SOLEIL NOIR (TOME 3) :
LA RELIQUE DU CHAOS

검은 태양의 주기(제3권)

혼돈의 유물

1918년 7월. 러시아 황족은 혁명가들에 의해 처형된다. 차르 니콜라 2세는 죽기 직전, 마지막 스와스티카가 숨겨진 장소를 밝힌다. 1942년 7월. 전쟁의 행방이 이보다 더 불확실해 보였던 적은 없었다. 영국은 침공의 위험에서 벗어난 참이었고, 스탈린의 러시아는 히틀러 군대의 타격에 굴복하고 있었다. 스와스티카를 손에 넣으려는 경쟁은 이제 오컬트 전쟁으로 번진다. 궁극의 유물을 손에 넣는 자가 승리를 차지할 것이다. 베를린, 모스크바, 런던에서 시간과의 다툼이 시작되고, 이중 요원인 트리스탄, 독일의 고고학자 에리카, 젊은 프랑스 여성 저항군 로르 등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행보가 서로 얽혀들어 가는데...

RIGHTS SOLD
7개국 저작권 판매 완료: 스페인, 폴란드, 중국, 일본, 이탈리아, 세르비아 등

FIND OUT MORE
> 6만부 이상 판매됨 (프랑스)

9782709663366 | 2020 | 421 PAGEs
21X14 CM | 22.00 €

실용·자기계발·취미

미셸 르주아이외

회복 탄력성과 현실적인 긍정주의를 되찾기 위한 비법.

› LES 4 TEMPS DE LA RENAISSANCE :
LE STRESS POST-TRAUMATIQUE
N'EST PAS UNE FATALITÉ

재생의 4단계

외상후 스트레스 없애기

누구나 전염병의 영향을 받지만, 아무도 같은 방식으로 전염병의 시대를 경험하지는 않는다.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꼭 위기를 겪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혹은 '전염병 후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다. 이 험난한 시대에 맞서 다시 태어나는 데 도움이 될,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각과 경험을 제시하는 책이다. 진정한 감정의 문법으로서의 '재생의 4단계'를 통해 최근 겪었던 일을 극복하고, 지나친 불안 없이 현재를 바라보고, 현실적인 긍정주의로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느리고 공허하게 흘러가는 순간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법을 알려준다. 저자 미셸 르주아이외 교수는 심리학, 뇌과학 및 의학의 최신 연구를 기반으로 우리 자신과 화해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비법과 훈련법을 제시한다.

9782709668316 | 2020 | 250쪽
22X14 CM | 19.90 €

JC 라테

문학

엘로이즈 코엔 드 티마리

비극적인 사건 앞에 선 두 영혼의 눈부시고 뜨거운 사랑.

LES AMANTS MÉTÉORES

유성의 연인

"어떤 광기가 그녀를 사로잡았는지는 아무도 말할 수 없었지만, 광기는 천천히 그리고 확고하게 그녀의 내면에서 자라나 그녀의 온 육체와 꿈 내부의 아주 작은 주름 속에도 뿌리를 내렸다." 어느 날 저녁, 마리안은 18구의 불법 바에서 재능 있고 기발한 동성애자 조경가인 비르질을 만난다. 만나자마자 확신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인생의 단 한 번의 사랑인 것 마냥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파리의 거리에서 브르타뉴의 해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사랑은 마가리타의 드라이한 레몬 맛, 굴의 맛, 좋은 와인과 뜨거운 저녁의 맛을 닮았다. 배경 음악은 80년대 이탈리아 노래들, 패티 스미스, 재니스 조플린의 노래가 좋겠다. 마리안과 비르질은 축제같이 유쾌한 삶을 영위하며 미래에의 계획을 세우고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만, 한 비극적인 사건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뒤흔들게 되는데...

RIGHTS SOLD
3개국 저작권 판매 완료: 독일어 (Hoffmann & Campe), 이탈리아 (Giunti Editore), 루마니아 (Editura Trei)

9782709666022 | 2020 | 328쪽
21X13 CM | 20.00 €

인문사회·에세이

아드리앙 압솔뤼

진실에 대한 희망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념비 같은 이야기.

LES DISPARUS DU JOOLA

줄라의 실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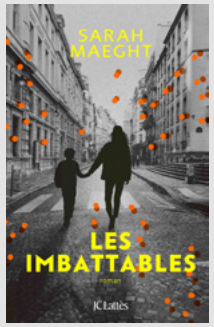
배 줄라가 침몰한 지 십 년 후, 아드리앙 압솔뤼는 카사망스로 향한다. 지갱쇼르에 정착한 아드리앙. 만나는 사람마다 2002년 9월, 이곳 사람들의 삶을 바꿔 놓은 그 날에 대해, 그 재앙이 폭력적으로 드러낸 이 세네갈 지역의 진실에 대해 그에게 이야기한다. 수사를 하기로 결심한 아드리앙은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읽고 들려줄 이야기가 있는 모든 사람을 만나며 이 국가의 무관심과 수많은 이들의 부패, 끔찍한 은폐와 규칙에 맞서게 된다. 아드리앙은 그날의 진실을 시간 단위로 알게 되었고, 배가 건조되고 빌려지고 점검을 받았던 시간과, 부적합한 점검 결과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허가했던 시점까지도 거슬러 오른다. 아드리앙은 배가 침몰한 뒤 영웅적인 용기를 보여준 사람들의 모습과 진실을 모른 채 기다려야만 했던 희생자 가족들에게는 무한히 길었을 그날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FIND OUT MORE
> 르노도상 에세이부문 후보

9782709661553 | 2020 | 281쪽
21X13 CM | 19.00 €

JC 라테

문학



사라 매그

"사라 매그는 감정을 다루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애써 꾸미지 않는다. 정제된 간결함 속에 녹아든 유머와 고통!" - 카트린 팡콜의 추천사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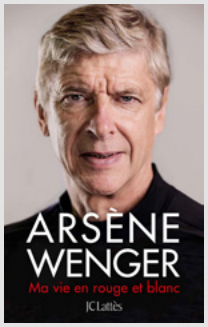
LES IMBATTABLES

무적의 두 사람

빅투아르는 대학 수업을 듣고나면 바질을 돌본다. 바질은 아홉 살이고, 빅투아르는 23살이다. 빅투아르는 미국 유학을 꿈꾸고, 바질은 친구를 사귀고 노르망디에 있는 프레베르의 집에 방문하는 것을 꿈꾼다. 바질은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하는 일에 대해,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에 대해 까다로운 소년이다. 빅투아르는 상점에서 절도를 하고, 지하철에 무임승차하고, 별자리 운세에 따라 기분이 달라지는 사람이다. 어느 월요일, 바질이 학교에서 떠나는 여행에 늦어 버스를 놓치면서 빅투아르가 일주일 동안 바질을 돌보게 되고, 이 시간은 두 사람의 삶을 뒤흔들게 되는데...

9782709666237 | 2020 | 302쪽
21X13 CM | 19.90 €

실용·자기계발·취미



아르센 벵거

전설적인 트레이너이자 뛰어난 감독인 아르센 벵거가 처음으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한 책.

MA VIE EN ROUGE ET BLANC

빨간색과 흰색으로 이루어진 인생

아르센 벵거는 게임에 대한 접근 방식, 엄격함, 혁신적인 아이디어 덕분에 종종 '교수님'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그는 축구 코치라는 직업을 하나의 예술로 바꾸어놓았고, 세계 축구사에 발자취를 남겼다. 알자스의 작은 마일 듀틀렌하임에서 자라던 아이는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코치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을까? 그는 어떻게 아스날에서 그 유명한 불패의 팀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70명의 직원만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던 축구팀을 700명의 직원이 일하며 수많은 타이틀을 거머쥔 새로운 팀으로 변화시킨 원동력은? 아르센 벵거는 이 책을 통해 그의 축의 인생에서 마주친 결정적인 만남들에 대해, AS 칸, 낭시, 모나코, 일본 나고야 등 그가 코치한 각각의 팀들에 대해, 조지 웨아, 릴리앙 튀랑, 티에리 앙리 등 그가 영입해 최고의 순간을 함께 했던 선수들에 관해 이야기한다. 또한 그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 승리의 순간과 끔찍했던 실패의 순간들, 축구 세계에 대한 그의 가치관 등을 이야기하며 독자에게 삶의 열정과 소중한 교훈을 제공하는 책이다.

RIGHTS SOLD
18개국 저작권 판매 완료: 중국,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폴란드, 러시아, 슬로베니아, 한국, 스페인, 타이완, 영국, 미국, 베트남 등

9782709666336 | 2020 | 270쪽
22X14 CM | 20.00 €

JC 라테

문학

아드리앙 보른

가족의 비밀과 침묵에 스러져간 한 누에 농장.

MÉMOIRE DE SOIE

비단 기억

1936년 6월 9일, 에밀은 스무 살이 되어 군복무를 위해 떠난다. 그러나 에밀의 부모는 그다지 감흥이 없어 보인다. 그들은 특별히 자랑스러워하지도, 걱정하지도 않는 것 같다. 에밀의 가족은 세계 대전이 일어났던 시절에 대해서도, 과거 가족의 자부심과 기쁨이었던 지금은 버려진 비단 농장에 대해서도 절대 이야기하는 법이 없었다. 오늘 아침에도 에밀의 어머니는 특별히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저 에밀이 떠나는 버스에 오르기 직전에 그의 가방 깊숙이 책자 하나를 쑤셔 넣었다. 가족의 족보였다. 에밀은 그 안에서 두 개의 이름을 본다. 어머니의 이름 수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 밥티스탱.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었다. 누구의 이름일까? 에밀은 누에고치를 풀고 실을 당겨 가족의 저주가 시작된 그 옛날의 비밀을 밝혀내려 하는데... 저자의 데뷔작으로, 침묵이 법이고 다정함은 사치인 묘한 세계로 우리를 빠져들게 하는 작품이다. 저자는 내밀한 비극과 전쟁의 기억을 탐구하고 망각의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우리 앞에 놓인 '사랑'을 이야기한다.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1만부 이상 판매

9782709666190 | 2020 | 247쪽
21X13 CM | 19.00 €

문학

엘라 페키

아랍의 봄을 바라보는 낭만 가득한 새로운 시선.

NOCES DE JASMIN

자스민 혁명

2011년 1월, 튀니스. 메디는 감방에서 원을 그리며 걷고 있다. 그는 앞으로 펼쳐질 운명을 알 수 없었다. 감방만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감방은 교도관들이 수감자들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목격했다. 그리고 감방은 메디의 귀에 속삭인다. 프랑스문화원에서 일하는 메디의 새로운 연인인 에시아가 밖에서 메디의 실종을 걱정하고 있다고. 에시아는 메디를 찾기 위해 메디의 직장인 신문사에도 찾아가고, 메디의 고향인 스팍스로 떠난다. 에시아의 아버지인 야신의 약국에는 최근 그 어느 때보다도 손님이 많았고, 특히 젊은이들로 북적였다. 튀니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음이 틀림없다. 언론은 검열을 당하고 있지만,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다. 그러나 진실을 아는 사람은 메디 혼자뿐이었다. 이것은 혁명이었다. 엘라 페키는 강렬하고 감동적이며 관능적인 텍스트로 튀니지의 자스민혁명을 이야기한다. 등장인물들은 저마다 그들의 기억, 상처, 희망과 두려움, 실패, 모든 것을 바꾸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새롭게 재건하기 위해 모든 것을 부수고자 하는 열망을 이야기한다.

라 그르나드 | 9782709666862 | 2020
208쪽 | 22X14 CM | 18.00 €

JC 라테

문학

니나 부라위

실비의 단어들은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와 자유와 평화를 향한 우리의 희망과 삶에 반향을 일으킨다.

> OTAGES

인질

실비는 평범하고 겸손하고 시간을 잘 지키며 단단하고 단순한, 직장에서 믿을 수 있는 좋은 동료가 될 법한 그런 여성이다. 남편이 그녀를 떠났을 때 실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으며, 모든 것이 괜찮은 척 아들을 키우고 이제는 너무 커진 부부 침대 위에서 홀로 자리를 지켰다. 상사가 그녀에게 초과 근무를 요구하고, 다른 직원들을 감시하라고 시켰을 때도 그녀는 항의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행동했다. 11월의 어느 아침, 세상과 사람들의 폭력성이, 그녀의 고독과 세상의 불의가 그녀를 덮치기 전까지는. 하룻밤 사이 그녀는 모든 것을 파괴했다. 실비가 한 일은 비난받을 만하고, 심지어 고소를 당하거나 감옥에 가야 할 지도 모를 일이었지만, 이 반란의 시간이 실비를 진정 살아 있다고 느끼게 했다. 그녀는 다시 태어났다.

RIGHTS SOLD

스웨덴에서 출판됨 (Gisslan, Elisabeth Grate)
스페인 저작권 판매 완료 (Editorial Les hores)

FIND OUT MORE

> 3만부 판매됨 (프랑스)
> 알레프 원

9782709650557 | 2020 | 151쪽
21X13 CM | 18.00 €

문학

디안 마즈룸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땅에 관한 자석 같은 힘을 지닌 소설.

> UNE PISCINE DANS LE DÉSERT

사막의 수영장

파우스타는 베이루트를 떠나 삼촌 루돌프 키리아코스의 집으로 향한다. 삼촌은 수년간 전쟁을 벌이고 있는 3개국의 국경에 위치한 산으로 둘러싸인 이 마을의 지배자이다. 파우스타에게 이곳은 어린 시절 여름을 보내던 달콤한 추억의 장소이지만, 한편으로는 파우스타를 뭉개버리기도 하고 동시에 달래주기도 하는 역설적인 장소이다. 이 땅에 갑자기 완벽하지만 불법인 수영장을 지은 것도 파우스타였다. 그녀는 그저 수영장 물에 뛰어들고 싶었다. 아이를 가지기 위한 마지막 호르몬 주사를 맞기 전에. 그러나 수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에서 레오 벤도스가 오면서 그녀의 계획은 어그러지기 시작한다. 그는 단 한 번도 조상들의 땅인 이곳에 온 적이 없었다. 항상 가족 소유의 땅을 팔고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을 뿐이다. 이 땅에서 그는 마치 일회용 카메라를 매달고 돌아다니는 호기심 많은 외국인 같은 존재다. 루돌프 삼촌은 그를 환영하고, 폭격의 밤에는 안심을 시켜주고, 파우스타는 그 모습을 지켜본다. 파우스타는 이곳에서 느리게 삶을 산다. 그렇게 파우스타와 레오 두 사람 모두 이 마을에 매료되고, 세상을, 풍경들을, 신화를 담아내고 있는 듯한 이 마을에 머물거나 떠나기를 결정해야만 하는데...

FIND OUT MORE

> 르노도상, 페미나상, 메디치상, 페미나 고등학생 선정 상 후보

9782709666138 | 2020 | 197쪽
21X13 CM | 19.00 €